



## “모두 한 마음입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회’  
 김포 얘기봉서 2월 12일 첫 출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20여 성직자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회'가 2월 12일 김포 얘기봉서 100일간의 장정에 나섰다. 사진은 김포읍내를 향해 걷고있는 순례회 모습.

2월 12일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했다. 바람막이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서조차 세차게 불어대는 강풍 때문에 체감온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최전방 김포 얘기봉은 상황이 더 어려웠다. 차가운 강바람이 두툼하게 입은 방한복을 뚫고 살 속을 파고들어 잠시도 서있기가 힘들 지경이다. 하지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성직자들과 신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얘기봉 전망대에서 진행된 '100일 도보순례 출발식' 현장의 열기는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뜨거웠다.

이번 도보순례는 한반도 대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일종의 '침묵시위'였다. 스님, 목사, 신부, 환경운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회'는 오후 1시 출발식에서 '생명을 가깝게 여기는 개발자상주의에 대한 성찰과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이어 인천생명평화기독교연대 공동대표 윤인중 목사는 "이번 순례기도회는 600km에 이르는 험난한 고행의 길이라 생각한다"며 "그 여정 속에서 설사 모욕과 욕을 먹는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김규봉 신부(창조보전 전국모임 사무

처장)는 "우리는 그동안 경제와 돈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겨왔다"며 "하느님의 유산인 우리 산하가 이토록 파괴된다는 현실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도보순례에 참여한다"고 고백했다.

법륜 스님(정토회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도보순례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하지만 떠나는 이 길이 생명을 경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써 계도시키는 기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순례단 단장인 이필환 목사(당당뉴스 발행인)는 출발기원문을 통해 "대운하가 물고 울 국토 파괴가 두렵고, 끝없는 갈등과 투쟁과 국론 대분열의 소용돌이가 두렵다"며 "인간들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짓밟는 아만적인 행위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



### 100일 동안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도보 순례 각 종교 20여 성직자 “운하 건설 반대 취지 알리겠다”

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발식이 끝날 무렵에는 천주교 문정현·문귀현 신부와 김지하 시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해 200여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하 시인은 "정부가 추진하

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한편으로 조심스러워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전국토를 희생물로 바치면서까지 운하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고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출발식이 끝난 2시부터 순례단은 얘기봉 전망대 관리사무소를 출발해 후평 1리 복지회관까지 2시간 여 동안 도보순례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경찰차의 안내를 받으며 아스팔트 도로 길 옆을 따라 한 줄로 도보를 한 순례단이 지나갈 때마다 소문을 듣고 환영 나온 지역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의 힘든 여정에 격려로서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순례단에 참여한 성직자들은 환경과 생명 운동 분야의 국가대표급 실천자들이었다. 우선 불교계에서는 전북 부안에서 서울까지 새만

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삼보일배를 했던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을 비롯해 생명평화탑순례를 5년째 하고 있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관 스님(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이필환·양재성·김민해·차홍도 목사가, 천주교에서는 최상석·김경일·이동훈 신부 등 그동안 지리산 일대에서 생명 운동에 동참했던 성직자들이 이번 순례길에 나섰다.

도보순례단은 100일 동안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유역을 도보로 따라가며 노숙과 자급을 원칙으로 하루 15~20km씩 이동한다. 또한 도보순례지 중간마다 '지역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도보순례는 불교환경연대에 3일전에 접수하면 1일동안만 동참이 가능하며 순례 진행 상황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홈페이지(www.saveriver.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무 지팡이를 짚고 순례를 시작한 수경 스님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말없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를 모든 물 생명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순례의 큰 목적"이라고 힘찬 목소리로 각오를 밝혔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백재원 기자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